일타 대종사 연구 '본격화'

은해사 주최 · 대각사상연구원 주관
10월 21일 동국대서 학술세미나
삶 · 사상 재조명, 연구 체계화 '물꼬'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10월 21일 동국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은해사 · 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20세기 한국불교의 대선지식 일타 대종사(1929~1999)의 삶과 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미진했던 일타 스님 관련 연구를 학술 체계로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들은 일타 스님이 조계종 청정승가의 토대를 마련한 대율사이자 선·교·율을 아우른 수행자였음을 입증하고, 생전 텍스트·음성 분석과 당대 계율학자와의 비교 연구, '일타 스님 기념관' 건립 등 본격적인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영천 은해사(주지 성로 스님)는 10월 21일 동국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 주관으로 '2026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발표자들은 일타 스님의 계율, 선풍, 교화행, 호국불교의 면모를 다각도로 규명하고, 향후 사료 수집과 종합 연구, '일타 스님 기념관' 건립 등 지속적인 연구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해사 회주 돈명 대종사는 '일타 큰스님을 추모하면서' 기조강연을 통해 "일타 큰스님은 기도, 연비, 6년 결사, 참선 정진, 경전 및 율장 수행 등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며 "한두 번의 학술행사로 스님의 업적을 모두 다룰 수 없는 만큼 분야별·주제별 세미나의 지속적 개최와 자료집 보완 발간, 인연 이야기 및 증언 채록 등 연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는 '일타 스님의 생애와 사상-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친·외가 41명 출가라는 희유한 집안 내력과 태백산 도솔암 6년 결사 등 스님의 치열했던 정진의 삶을 조명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기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자료 수집과 증언집·사진집 발간, 저술의 인문학적 바탕 규명, 당대 계율학자와의 비교 연구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포교·문도 정체성의 거점이 될 '일타 스님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겸임교수 법장 스님도 '일타 스님, 율사로서의 위상' 발표에서 "스님은 계율 실천과 수행을 통해 조계종이 청정승가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한 대율사"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재조명을 주문했다.

전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일타 선사의 수행론-선사상과 선풍을 중심으로'에서 "친·외가와 속가 관계자 등 41명이 출가한 이력은 한국불교사에 새로운 이적과 출가 모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일타 스님의 교화행' 발표에서 향후 녹음·영상 법문에 대한 설법 구조 분석, 생전 간행본과 사후 편집본 비교, 해외 교화 자료 발굴 및 구술 채록을 후속 과제로 꼽았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은해사의 호국불교와 일타 스님' 발표에서 "은해사의 역사 복원과 사격 재정립은 일타 스님의 불타주의와 선구적 혜안 덕분"이라며 스님의 자리이타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은 "업적과 법문이 많으신데 애석하게도 일타 스님 관련 세미나를 15년 전 한 번 개최한 후 지금까지 못해 왔다"면서 "앞으로 일타 스님의 연구를 더욱 확장해 일타 스님의 생애를 한 권의 책으로도 모으고 또 문집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은 "오늘 세미나는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가르침이 지닌 의미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은해사 역시 큰스님의 수행·지계·자비·전법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 속에 법향이 퍼지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기영 박사 30주기…학문과 구도행 살핀다

한국불교硏, 11월 6일 심포지엄
서적 2종 개정판으로 재출간도

한국불교연구원이 창립자인 불연 이기영(1922~1996) 박사의 타계 30주기를 맞아 그의 뜻을 기리는 학술 행사를 열고, 1주기 무렵 펴낸 책 2종을 개정판으로 선보인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주형)은 11월 6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불연과 불교, 학문과 구도행'을 주제로 30주기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벨기에 루뱅대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기영 박사는 불교 연구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이끌었다. 1963년 동국대에 인도철학과를 창설하고, 원효 스님 연구에 앞장서며 한국불교의 사상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1974년 한국불교연구원을 설립해 재가불자 교육과 학술 연구에 헌신했으며, 1996년 타계할 때까지 저·역서 50여 권과 논문 130여 편을 남겨 한국 불교학의 지평을 넓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30주기를 맞아 그의 뜻을 기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간절히 빌고 생각한다는 뜻의 '기념(祈念)'을 표제로 삼았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제4대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이 기념사, 하재웅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 전 회장과 정호영 한국불교연구원 제3대 원장(충북대 명예교수)이 '불연 선생님을 기리며' 헌사를 이어간다.

심포지엄에서는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 제4대 원장(한국종교문화연구소 전 이사장)이 '불연의 학문적 위상, 그리고 우리 통념의 한계는 무엇일까'를, 박보람 충북대 교수가 '돌아갈 일심(一心)은 무엇인가-일심 논의를 통해 본 불연의 한국불교 연구'를,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이 '현대 재가불교운동에서 불연의 자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행사는 영상 상영과 불연전집 간행 보고, 이주형 한국불교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폐회사로 마무리된다.

아울러 한국불교연구원은 이기영 박사의 타계 1주기 무렵 출간했던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1997)와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1998)의 개정판을 '불연불교강의' 시리즈로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앞으로도 이기영 박사의 주요 저술을 엮어 사회평론아카데미의 '불연불교강의' 시리즈로 계속 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30주기 강연문과 10주기·15주기 국제학술세미나 발표작을 모은 학술서 발간은 물론, 생전 강의 녹음·영상 자료를 내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배희정 기자

탄허 선사 종교사상 조명

한국종교교육학회 · 한국불교학회
10월 31일 서울 동국대 문화관서

이웃 종교 학자들과 함께 탄허 스님의 종교사상과 교육 철학을 조명하는 학술의 장이 열린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손원영)와 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세미나실에서 '세계종교에서 본 탄허 선사의 종교사상'을 주제로 2026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종철 종교교육학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한암의 선불교적 교육관과 교육이념'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종립대학 종교교육, 탄허에게 길을 묻다: 동국대학교 대학선원장 활동의 교육적 함의(박진영) △탄허의 교육철학: 인재양성과 삼교융합 교육철학(윤창화) △동학으로 본 탄허 선사의 불교교육사상(정혜정)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윤종갑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2부에서는 신창호 고려대 교수의 '탄허 선사의 불교 정신에서 탐색해 보는 교육의 의미', 박병훈 원광대 연구교수의 '탄허의 역학사상 연구', 김남희 가톨릭대 교수의 '탄허 선사의 예지력과 김수환 추기경의 카리스마, 그 집중과 확산에 대하여'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박성일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의 '탄허의 계율관 연구: 〈범망경〉 및 이사무애계', 황진수 선문대 교수의 '종교신학의 관점에서 본 탄허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의 '탄허의 회통과 유동식의 풍류의 만남: 상호종교교육을 위한 '회통-풍류학적 접근'의 가능성 탐색'이 발표된다. 발표 종료 후에는 종합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가 탄허 스님의 종교·교육 사상을 되새기는 한편, 우리 사회의 종교 교육과 종교 간 이해에 실질적 시사점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희정 기자

전통 다비작법의 보존·전승 모색

전통다비작법보존회, 10월 23일
무형유산 전수조사 성과 발표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사)전통다비작법보존회(이사장 무공 스님)는 10월 23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 전통 다비작법(茶毘作法),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 한국불교 다비'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2021년부터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불교무형유산연구소)와 함께 진행해 온 '전국 전통 사찰 무형유산 전수조사'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조계종 의례위원장이자 보존회 상임이사인 원명 스님은 '전통다비작법: 불교무형유산 살아 숨 쉬는 오늘의 가치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금강 스님(중앙승가대)이 좌장을 맡아 좌담회를 진행한다. 좌담회에는 무공 스님, 원명 스님, 혜일 스님(해인사 주지), 도신 스님(수덕사 주지),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 성원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수경 스님(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등 보존회 이사 스님들이 참여해 전통다비 전승을 위한 종단적 지원과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실천적 로드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다비 전통과 그 불교적 의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이어 △다비설행에서 염습작법(각진 스님) △불교 전통 다비장(연화대) 조성 기술의 역사성과 가치(철인 스님) △현대 한국불교의 다비설행 현황과 발전 방안(황근식) △중국불교 다비의 현황 고찰(곽뢰) △현대 일본 승려의 장례법에 대한 고찰(이태승) 등 5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배희정 기자

정미년 불교달력은 마하몰로 주문주세요!!

마하몰에서는 불기 2571(서기2027)년 불교달력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와 사이즈, 더 좋은 이미지와 사진들로 구성된 달력들을 다양하게 준비 하였습니다. 한지, 달력(大, 小), 차걸이, 수첩, 마닐라, 등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제작 · 공급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호 동심불 이야기 5월


201호 천진불


203호 산사의 향기


204호 암자에 길을 묻다


205호 그리운 금수강산


206호 부처님의 꽃 수련의 세계


208호 밝고 향기롭게


102호 관음도(한지)


211호 마음의 고향


214호 수행정진


215호 견성성불 달마도


216호 부처님의 성지


217호 산사의 꽃 야생화


224호 12별자리와 신비한 부적


참나를 찾아서(차걸이)


오늘은 좋은날 행복한 미소(차걸이)


밝고 향기롭게(수첩) 동심불 이야기 (수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